



제비의 여름 나기 장맛속에 무더운 날씨를 보인 1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남생이못에 제비들이 목욕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 또다시 고개든 '인사청문회 무용론'

### 인사특위 '부적격' 시장 임명에 청문 무력화 지적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개선 한목소리... 귀추 주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특위가 '부적격' 의견을 낸 김태업 서귀포시 예정자를 행정시장으로 임명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전 내정설이 현실화되는 '무늬만 공모'인 행정시장 공모로 '인사청문회 무력화'가 지적되면서 '차라리 임명제로 가는 게 낫다'는 비판과 함께 임명을 위한 둘러리로 전락한 '인사청문회 무용론' 논란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분산할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원희룡 지사는 1일 안동우(58) 전 제주도 정부부지사, 제주시장에, 김태업(60) 전 서귀포부시장을 서귀포시장에 각각 임명하면서 "민선7기 후반기 도민통합, 도민소통, 공직혁신을 기반으로 제주도정의 주요 현

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제주시장 임용자에 대해서는 3선 도의회 경력과 민선6, 7기 2년 3개월간 정부부지사직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과 원활한 업무능력을 보여줘 향후 제주시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예정자는 앞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로부터 '적격' 의견을 받았다.

김 서귀포시장 임용자는 32년간의 행정경험과 공직내부의 신망이 두터운 점 등이 감안됐다. 특히 현재의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재난위기 상황 속에서 서귀포시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귀포시장으로 임용하게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 등 지역사회 일각에서 인사청문특위가 '부적격' 의견을 낸 김 서귀포시장의 임명에 대해 '오만·불통 인사' '도민 무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인사청문회 무력화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 지사가 제주도의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무려 네 번째"라면서 "임명을 위한 둘러리로 전락한 인사청문회 제도는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인사권을 포함한 제왕적 도지사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 분산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014년 원 지사 본인이 처음으로 도입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셈"이라면서 "이럴 거면 뭐하러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 도정은 지금이라도 낙하산·회전문 인사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원칙과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도 이날 입장문에서 무늬만 형식적이고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청문회 제도 개선과 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시장 직선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탐나는 인재 3기 80명 모집

제주터너내일센터가 오는 22일까지 '탐나는 인재' 3기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80명으로 도내 지원자 60명, 도외 지원자 20명을 선별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5세

부터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취업·창업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에 관심 있는 청년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자격조건은 학력, 경력 등의 제한은 없지만 프로그램 기간(최대 2년) 동안 센터가 운영하는 교육에 전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빠짐없

이 참가 가능해야 한다.

터너내일센터는 코로나19로 기존 2기 모집까지 오프라인으로 실시했던 공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전환 추진한다. 온라인 설명회에선 내일센터 인재상, 교육 및 단계별(1~4단계) 프로그램, 3기 선발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오은지기자

# "현안 해결 앞장... 일하는 의회 될 것"

## 인터뷰

### 신임 좌남수 도의회 의장 집행부와 견제·균형 약속

신임 좌남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사진)은 '일하는 의회'를 강조하며 서민경제 회생 주력, 찾아가는 민생의정 구현,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1일 제주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 좌 의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저는 평생을 노동현장에서 보냈다. 갖은 탄압과 억압에도 서민과 노동자, 농민 등 약자를 대변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며 "도민의 대의기관 수장으로서 의장직 수행을 부여해주신 것은 지금보다 더 정치적으로 대변하면서 분명한 역할을 해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좌 의장은 "후반기 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만들겠다"면서 "도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언제나 도민 편에 있겠다. 의회가 먼저 도민이 계산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겠다"면서 '찾아가는 민생의정 구현'을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 문화를 만들고, 의원과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 운영을 하겠다"면서 의회 먼저 내부로부터 변화하고 혁신하는 등 '의회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민의의 전당'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찬, 예산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좌 의장은 제주도정을 향해 "제주가 커지는 꿈, 도민과 함께 한다는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하며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의 공복으로 일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좋은 정책은 적극 지원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 나가겠다. 갈등과 긴장을 뛰어넘어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민경제 회생에 주력하겠다"면서 '민생경제와 경제회생을 위한 특위'를 만들고,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일하는 의회가 될 것임을 피력했다.

오은지기자

## "제주여행 강행하다 확진, 책임 묻겠다"

### 원 지사 어제 담화문 발표

코로나19 지역사태 재확산 우려 속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는 코로나19 도피처가 아니다"라면서 제주여행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유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하다

확진될 경우 상응하는 책임을 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1일 담화문을 통해 "제주를 찾는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면서도 "단, 개념도 가지고 오셔야 한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지역감염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이지만 이것이 감염우려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는 70만 도민들의 생활 터전이고, 국민의 힐링을 위한 곳이지 코로나19의 도피처는 아니"라며 "코로나19 확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인 만큼 여행객 한 분 한 분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증상이 있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주여행을 강행하다 확진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 2022년 외도-애조로 완공

제주시는 서부지역의 남북간 교통량 분산을 위해 외도-애조로를 잇는 1.54k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2022년 완공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1일 밝혔다.

총 사업비 105억원(공사비 54억, 보상비 51억원)이 투입되는 이 도로는 2002년 4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고, 2018년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추진중 레미콘과 VR판 등 관급 자재 공급 불균형으로 잠시 중단돼 왔다. 이 도로가 준공되면 교통량이 급증하는 외도지구와 애조로를 오가는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미숙기자

### 알림

##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

한라일보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문)는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지역의 희망이자 미래인 풀뿌리 지방자치의 완성에 앞장선다.

대신문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상민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9일 국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19 뉴노멀 시대에 대비, 국정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한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 여야 원내 대표 및 국회의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대신문 회장단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통합경찰법안 전부개정안 등 '포용과 통합의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기 입법 의지를 다지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섭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합니다.

**일시: 2020년 7월 9일(목) 오후 1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소회의실**

##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 ▶ **제라몬**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국내산 레몬)
-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감, 탐나는봉

**가정원에(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새마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나몬, 탕자모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 감귤묘목

###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 4년생  
성전온주 ..... 4년생  
황금향 ..... 4년생

병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 한림종묘

010-3690-2453

## 감귤 신품종 분양

###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010-2691-1883

##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원터프린스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